

새로운 비전~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이뤄갈 우리 교회 2022년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와 사명을 되새겨 본다.

‘선’ 시리즈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의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해외에서 온 편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러시아, 이스라엘, 몰도바에서 보내온 편지.

성전 건축의 기쁨!

몸과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에 힘쓰니 모든 성도가 사모함이 더해져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는 꼭 선풍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959호 2022년 1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 ‘2021-2022 송구영신예배’가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에 대해 설교했으며, 2부에는 신년 개인 기도 제목 작성과 축복기도가 있었는데, 각 가정에 미리 전달된 기도 제목 용지에 성도들이 작성해 교구를 통해 취합되었다. 또한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찬양과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망의 2022년, 우리 교회 4대 비전 발표

2021년 12월 26일, 주일 저녁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무연회에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하여 2022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이뤄갈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발표하였다.

비전1 불가능이 없는 믿음(막 9:23)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셨다.

개척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쉽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을 무수히 보아 왔다.

지금도 랜선 기도회와 은사 집회,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 기도를 통해 권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도약을 이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원한다.

비전2 거룩한 자녀(살전 4:3 ; 딤후 4:5)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했다.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은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않은 영혼들을 어찌하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 쉽 없이 미혹한다. 날이 갈수록 죄와 불법으로 어두워져 가는 오늘날에 세상을 이기며 지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으며, 나아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기도가 있어야 더러움을 벗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기에 더욱 말씀 무장에 힘쓰며 불같은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할 것이다.

비전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마 21:12~1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과 찬성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응답과 축복으로 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야 한다.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또한 대성전을 앞당기는 길이다. 특별히 ‘성전 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과 생각으로 온전히 변화되며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4 재창조의 권능 100%(겔 37:4~10)

재창조의 권능이란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이다.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이다.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믿음조차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대에 사는 인생들이 재창조의 권능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령이 참임을 믿어 구원은 물론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그에 맞는 공의를 쌓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룰 때 창대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갈 것이다.

만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만민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선의 단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대다수 사람들은 선에 대해 막연히 ‘착한 것,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성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양심에 따라 ‘선하다, 선하지 않다’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마음으로 각자의 배움이나 환경, 어떤 부모나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뜻 자체를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악으로 대항치 않고 감정을 눌러 참는 선의 1단계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무 죄도 없는 여려분에게 욕을 했을 때 똑같이 대응해 싸우지 않고 잠잠히 참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불편한 마음을 꺾어 참았지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선 선하고 온유해 보여 세상에서는 “범 없이도 살 사람이 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에 여전히 악이 있기 까닭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맞대응해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에는 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2.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없는 선의 2단계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는 단계입니다. 속이 상해 꺾꺾 눌러 참는 것도 없고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도 품지 않는 차원이지요. 이는 마음에 악이 없는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순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을 다스리며 선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결국 순간의 감정 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간음했다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끌고자 했지요. 이처럼 선한 요셉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 즉 선의 2단계 마음을 이뤄야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고 시험 환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원수 마귀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순종해 악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보호 받거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만 이룬다 해도 그 선이 빛으로 역사돼 자연히 어둠이 물러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책임자로 있는데 아랫사람의 실수로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경우 회장님 앞에서는 “제 탓입니다. 제가 더 돌아보지 못한 까닭입니다”라고 민망해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잘못된 아랫사람에게 책임지라며 압박하거나 혹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는 않았는지요.

선한 사람은 중심에서 자신이 책임질 줄 압니다.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깨우쳐 주되 힘이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 일을 풀어 나가지요. 그러니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 더 하나 돼 일을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책망 듣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 다행이다’ 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속으로 함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이때도 ‘내가 도와줄 걸...’ 하며 미안해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은 어떻겠습니까? 진실하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되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지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을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론 손해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3단계

선의 2단계가 마음에 악이 없기에 단지 악으로 맞서 대항치 않는 소극적인 선의 단계라면, 선의 3단계는 적극적 선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으로 대항치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단계입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해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으로서 이러한 선의 단계에 들어와야 온 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42절에 “...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의 3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손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선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쩌하면 그의 마음을 녹여 화평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

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을 이룰까만 생각하지요.

선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현실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선으로 채워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룬 만큼 영적인 빛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선의 2단계에만 들어가도 영적인 빛으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므로 시험 환난, 핍박이 물러가며 시험이 온다 해도 선으로 통과함으로 오히려 축복을 받지요. 하물며 선의 3단계에 들어간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으로 나온 상대의 마음이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에 감동을 받아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는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빛이 너무나 강해 상대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상대의 마음에 남아 있는 작은 선에까지 그 빛이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이란 단지 착해서 저 주고 다 내어 주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 꾀계도 파하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령 아직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어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 자체가 선으로 일궈져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선을 쌓아간다면 선이 나오게 됩니다. 선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되 악이 온전히 벗어졌다면 그때가 비로소 선의 2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의 2단계에서도 때에 따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말이나 선한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론 상대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선한 말을 내기도 합니다. 나아가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섬김의 행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3단계에서는 이런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 '나는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선한 말을 했으니 선의 3단계구나'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대에게도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를 선대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4.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생명도 아낌없이 주는 선의 4단계

가장 차원이 높은 4단계의 선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선의 차원이요, 의인이나 선인만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선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이라는 저주

를 속량하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흠 없는 보혈을 흘려주므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영의 자녀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예수님처럼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4단계의 선에 이른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늘 불평했고,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출 32:32).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핍박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 언정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롬 9:3).

이러한 차원에 이르면 원수 마귀 사단이 훼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됨은 물론,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거해 세세토록 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신속히 온전한 선의 단계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



예수교 연합성결회 러시아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러시아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는 만민의 가족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 교단은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 각자의 사역지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저희 교단이 만들어졌고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올해 28기, 29기 선교신학교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실습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0기를 모집하여 계속해서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배출해갈 것입니다.

총회장이신 발레리 드레노긴 목사님과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님의 사역지에서도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소모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올해 목표는 러시아 중부 쿠르스크 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것과 러시아 남부 아나파 시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교회를 방문하지 못해 매우 그립습니다.



이스라엘 나사렛 생영교회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 목사

이스라엘도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 주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기도모임을 하고 있는데 10개 국이 넘는 곳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옷과 식료품을 나눠주고,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지원해 주었으며,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직접 가서 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선물도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사렛 주변 아풀라 시에 저희 성전 건물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어 많은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도바 만민교회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선교사

몰도바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역에 여러 제약들이 있었으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금요일과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본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실황을 녹화하여 저희 예배 시간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후에는 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그날 들었던 설교로 은혜를 나누며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불같이 기도하며, 21일 작정 다니엘철

야가 진행되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만민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은 수천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몰도바뿐 아니라 러시아어권 나라들에서 동참하고 있고 이들은 실시간으로 기도 요청을 보내오거나 감사헌금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또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분 정도의 성결의 복음을 주제별로 올리고 있는데, 현재는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 2개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같은 경우에는 조회 수가 1만 회가 넘었고, 그 외 영상들도 보통 1천 회가 넘습니다. 올해도 몰도바 만민교회는 믿음 성장과 교회 부흥의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까지

꼭 섀뚜 성도 (64세, 베네수엘라 따치라 주 빠나메리가노 지성전)

2008년 어느 날, 엔라세 방송을 통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셨지요. 그 설교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에 따른 마음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 비결은 알려 주지 않고 그저 주님을 믿으면 축복 받는다는 말씀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엔라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0년 저희 자녀들이 학업을 위해 콜롬비아 보고타에 살게 되었고, 2013년에 그곳에 만민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저희는 만민교회에 방문하고자 콜롬비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장정연 목사님을 통해 당회장님의 사역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설교의 깊이를 더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저희는 자녀들에게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 때때로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행사에 참석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만민교회를 더 사모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2017년, 만민하게수련회 참석차 누나와 아들, 딸과 함께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치료의 역사와 귀신이 나가는 것 등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많이 놀랐지요. 무더위의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장소는 적절한 기온 속에 바람이 불어 시원했으며, 잠자리가 제 손에 앉는 행복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직접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해 보니 당회장님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회장님을 인도하셔서 이 대형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더욱 이해하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을 만나기 전, 저는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의 중요성과 불같은 기도

무엇인지를 알아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있지요.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한번 예배드리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사업터에서도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해 혹여 직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으면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는데, 진리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딸 벤징도 예전에는 교만하고 교회 일은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겸손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지요. 아들 다니엘도 비디오 게임을 즐겨하며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성도님들로 구성된 전도팀은 주일마다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모든 성도가 금식하였고, 일꾼들은 주일 반나절을 금식하며 주의 일에 힘쓰니 점차 부흥하였지요.

그러자 저희는 지성전이 비좁아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상의하여 건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지요. 먼저 성전 부지를 준비해야 했는데, 때마침 제 조카가 소유한 땅을 팔아야 했고 그 땅은 성전 부지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해 제가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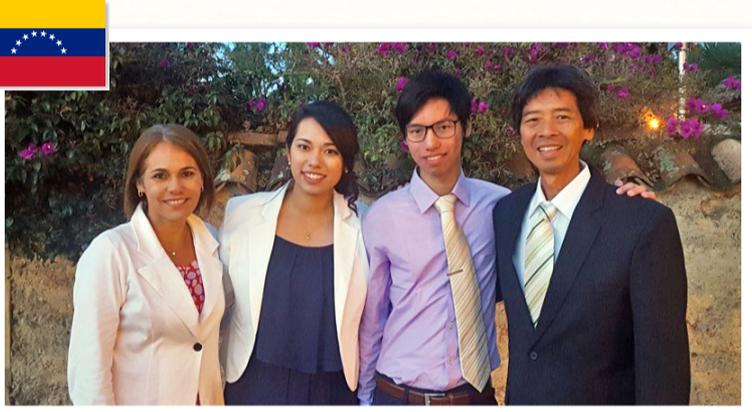
어느 정도 지성전의 성도님들과 해외 성도님들의 헌금이 도움이 되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야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하기에 힘썼지요. 성도님들은 건축 일에 동참하였고, 저희 자녀들은 필요한 전자물품들을 헌물하며 건축 일도 감독해 주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아내는 어느 곳보다 먼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에 힘쓰니 모든 성도가 성전에 대해 사모함이 더해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 총 220평의 106평의 성전을 건축하였지요.

2021년 12월 5일 주일, 장정연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지요. 모든 성도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이후 성도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불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2022년 올해는 교회를 더 부흥시키며 만민의 사역에 더 뜨겁게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영육 간에 축복받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한 꼭 섀뚜 성도

저희 부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라인으로 콜롬비아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집에 14명이 모이게 되면서 2019년 1월에는 빠나메리가노 지성전을 마련하였지요.

그해 3월에는 장정연 목사님의 '베네수엘라 3차 선교'가 있었는데, 일정 중 저희 지성전에 방문하여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치료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을 보고 들으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와 장정연 목사님의 전화 기도를 통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